

광명소방서, 화재없는 치매안심마을 추진

화재위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모인 기아오토랜드광명, 광명소방서,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

기사입력시간 : 2024/11/29 [12:51:00]

이강순기자



▲ 광명소방서, 화재없는 치매안심마을 추진

[한국뉴스채널=이강순기자] 광명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특수시책의 중 하나인 찾!찾!찾!(찾기전에 찾아가서 찾아내자)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.

이번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특수시책인 찾!찾!찾!은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민관합동으로 먼저 찾아내서 화재안전용품 지원 및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여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진되었다.

치매환자들은 인지능력저하로 화재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, 이러한 화재취약계층은 전국적으로 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.

이러한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치매환자를 위해, 광명소방서에서는 치매환자 특화소방안전교육 및 가스차단기 및 화재안전콘센트를 지원받아 보급·설치해주는 사업을 계획했다.

이미 기존에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대상자들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기아오토랜드광명 및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와 함께 화재예방물품을 지원받는 기탁식을 개최했다.

이종충 소방서장은 “겨울철 화재안전대책 특수시책인 찾!찾!찾!을 통해 광명시에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먼저 찾아내어 도와줄 수 있게 되었다” 며 “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화재안전취약계층에 좀 더 면밀히 고민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